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식 '화합' 축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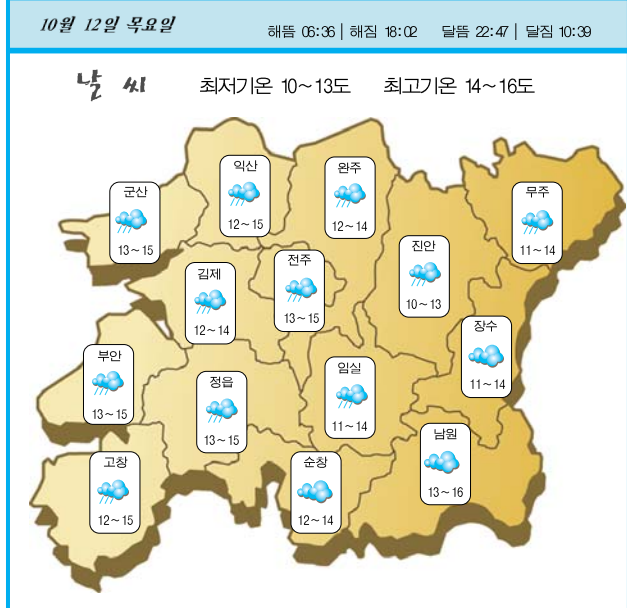
오는 13일은 전북대학교 총장 이남호 개교 70주년 기념일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북대는 지난해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해 70년사 발간을 비롯해 기념음악회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 등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13일 오후부터 삼성문화회관 등 캠퍼스 곳곳에서 열리는 개교기념식에서는 7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대학의 위상과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하루 종일 열린다. 전북대의 철순잔치에는 대학 구성

13일 삼성문화회관서, 문화행사 다채

원을 비롯해 국내 주요 정부기관 및 장계 주요 인사, 국내 주요 대학 총장 해외 자매결연대학 총장 등이 공식 초청됐다. 우선 오후 3시 대학본부에서 삼성문화회관으로 이어지는 기념행렬이 개교 70주년 기념식의 시작을 알리고 삼성문화회관 앞에서 '성숙 100년'의 의미를 담은 화해장식을 제막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만든 이 화해장식은 삼성문화회관 로비에 가로 2.4m

높이 2.4m의 규모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라는 문구와 사람을 표현한 것과 가로 2m 높이 1.8m 폭 2m 규모로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글씨로 장식된 것이다. 이날 개교기념식에서 제막식 후 일정기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공식 행사에서는 김재민 교학부총장이 70년간 전북대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이남호 총장의 70주년 기념사와 함께 수많은 내·외빈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전북대 최우수학과 및 우수부서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교수합창단의 축하가 이어진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전체 내외빈이 손을 맞잡고 전북대 교가와 손에 손잡고를 합창하면서 공식 기념식이 마무리 된다. 이남호 총장은 "찬년의 용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전북대학교가 역사적인 개교 70주년을 맞았다"며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식이 지난 70년의 성장을 주춧돌 삼아 성숙을 향한 100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혁신교육으로 독일 교사들 전북 교사와 만난다

도교육청 혁신교육 국제 교류 일환, 독일 혁신학교 전북의 혁신+학교서 2주간 공동수업 진행

전북도교육청의 혁신교육 국제 교류가 올해에도 혁신+ 학교인 남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혁신교육 국제 교류 일환으로 독일 빈터후드 학교 교사 2명과 피팅겐 종합학교 교사 1명이 10일부터 남원초등학교와 회현중 그리고 전주덕일중에서 2주간 공동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원초등학교와 회현중 교사 3명이 지난해 독일 함부르크시에 있는 빈터후드 주립학교를 방문해 2주 동안 공동수업을 진행했고 올해 초 학교간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독일 빈터후드학교와 피팅겐 종합학교는 각각 독일 북부 함부르크와 피팅겐에 위치한 혁신학교로 통합과 협업을 기치로 학년을 통합해서 팀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 모든 학생은 고유하다는 생각으로 개별화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학생 중심의 개별화된 평가 등으로 독일 내에서도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피팅겐 학교는 교사들도 팀으로 구성되어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혁신적인 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번 교류에 참여한 교사는 빈터후드학교 초등부 교장 안드레아 칼스버그, 5~7학년 교사 안 노렌베르그, 피팅겐학교 특수전담 교사 구트룬 브뢰어만 등 3명으로 이들은 공동수업이 외에도 혁신교육을 주제로 교사 학부모 인근교회 교사들과 한·독 혁신교육 간담회 특수교육 간담회 등을 가진다. 또한 도교육청 주관 2017 배움과 성



신규임용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전주시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전주시도사혁신센터에서 올해 신규임용공무원과 임용후보자 등 80명을 대상으로 전주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생활의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의 수업현미경 행사에도 참여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 사례를 전시하고 사례를 발표 하면서 많은 교사들과 폭넓게 교류할 예정이다. 수업과 평가사례를 나누게 된다. 이들 교사들은 도교육청과 교육과정 및 학생교류를 협의하는 한편 혁신교육을 주제로 한·독 혁신교육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국제교류는 2013년 독일 헬레네링에 학교 컨설턴트 엘버트 마이어 교사가 교사 및 학

생 교환을 제외해 다음해 헬레네링에, 헤센발드 학교와 우림중, 회현중이 교사교류와 학생교류를 진행해 시작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혁신+학교인 회현중 전주중앙초, 남원초등학교가 교사 교류를 해오고 있고 올해는 전주덕일중 장승초가 새로 시작하고 있다. 혁신교육 국제교류 중 교사 교류는 독일과 전북의 학교가 서로 2주간 교환 방문해 상대방 학교에서 실습 및 공동 수업을 하고 이 밖에 참관 및 수업, 교육과정, 평가 방안 협의 등의 방

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혁신교육 국제교류가 서울·경기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지역민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면서 전북 혁신교육의 내용을 창의적이고 풍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류가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육과정과 수업의 교류로서 국제적 교육연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원광대 생명환경학부 김옥진 교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원광대 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김옥진 교수가 동물매개치료 수준 제고 및 저변확대를 이룸으로써 학회의 역향증대와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했다. '시사투데이'가 주관하는 이 상은 각 분야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주역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시상식은 지난달 28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2006년 원광대에 부임한 김옥진 교수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모색 하면서 해외 선진사이에 착안해 2008

년 보건보원의학대학원에 동물매개 심리치료학과 개설을 이끌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창립을 주도해 학회장을 맡아 학술서 및 학회지 발간 학술활동의 과학화를 비롯해 지원, 검증, 공유 등을 활성화시켰다. 특히, 2017년 농촌진흥청 TOP5 융복합프로젝트인 '이동 인성 향상을 위한 동물매개교육 모델 개발' 주관 책임자로 선정돼 체계적인 연구 수행으로 다양한 성과를 얻고 있다. 김옥진 교수는 "그동안 동물매개치료의 과학적 접근 및 연구, 검증과 데이터 누적, 공유, 학술활동에 정진해왔다"며, "동물매개치료가 신 의료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나라의 학술 수준이 국제적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전북대, '성숙 100년 비전' 심포지엄 개최

전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성숙을 향한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성숙 100년 비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2일 오후 1시 30분 전북대 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융합인재 양성 및 농생명산업 발전방안,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도 거점대학의 역할과 대응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정연 교수서

강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양성'을, 권택윤 농진청 4차 산업혁명 대응단 부단장이 '4차 산업혁명과 농생명 산업'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가이 사토시 일본 나카무라학원대학교 총장이 일본 규슈지역 사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공생발전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전북대 김영정 교수(사회대 사회학과)가 지역 경쟁력과 대학의 역할'을 이야기 한다. /정해은기자

학교를 품은 마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

전라북도 교육특구 포럼

2017 혁신·농어촌·방과후학교

2017. 10. 16. (일)

| 13:00~18:00 |

오펠리스 웨딩홀

- ▶ Session 1. 지역의 성장, 학교와 마을이 함께 꿈꾸다
- ▶ Session 2. 교육특구로 지역과 함께 풀어나가는 고등학교 정책
- ▶ Session 3. 방과후활동,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